

## VI

# 제2차 세계대전 일본계 미국인 재정착 정책과 조건부 이동성<sub>mobility</sub>

권은혜  
한성대학교

## 미국 역사 속 소수자의 이동성<sub>mobility</sub>

이동성<sub>mobility</sub>, 즉 이동할 곳을—혹은 머무를 곳을—선택할 개인의 능력은 서구 근대 시민권의 핵심 요소이다.<sup>1)</sup> 21세기 들어 영미권의 문화 및 도시 지리학, 사회학 연구자들은 미국의 현대사에서 이동성이 인종, 젠더, 섹슈얼리티, 국적에 따라 차등적으로 배분되는 방식을 연구했다.<sup>2)</sup> 사회학자 미미 셸러에 따르면, “인종, 성별, 성적 경계와 모빌리티에 대한 끊임없는 감시야말로 이동성을 갖춘 백인, 이성애자 남성, 국민적 주체를 구축하고 이에 힘을 부여하여 백인 권력의 기초를 마련”했으며 이 주체의 “권력은 자유로운 모빌리티라는 지배적 내러티브를 지탱해 줄 타자를 발견해야만 유지된다.”<sup>3)</sup> 셸러의 통찰을 빌리자면 미국 정부는 인디언, 흑인, 여성, 성소수자, 이민자 등 타자의 이동성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백인 이성애자 남성에게 자유로운 이동성을 부여했다고 볼 수 있다. 건국 초기 미국의 백인 엘리트는 백인이 이주할 정착지를 마련하기 위해 인디언을 선조들로부터 내려 온 땅에서 제거하고 낮은 곳으로 강제 이주시켰다. 건국 이후 자유 흑인의 수가 증가하자 이들을

백인과 동등한 시민으로 인정하는 대신에 서아프리카로 보내는 식민화 계획을 고려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인디언은 그들의 이동성을 통제하려는 정부에 맞서 스스로 이동의 자유를 추구하며 저항했다.<sup>4)</sup>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계 미국인은 “적국 외국인”으로 취급받으며 이동과 거주 자유를 박탈당했다. 진주만 공격 이후 미국 정부는 일본계 미국인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던 서부 해안 지역을 군사지역으로 선포했고 약 11만 명의 일본계 미국인을 내륙에 급조된 수용소로 강제 이주시켰다. 1942년 10월에 정부는 이들을 무기한 수용소에 가두는 대신 서부 해안 지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고루 분산시켜 재정착을 유도하는 정책을 수립했다. 재정착 정책은 수용소 운영을 담당하던 내무부 산하 ‘전시재이주국<sup>War Relocation Authority</sup>, 이하 WRA’에서 기획하고 관리했다. 전시재이주국 산하 11개 ‘재이주 센터<sup>Relocation Center</sup>’—이는 정부 공식 명칭이었고 집중수용소의 성격 때문에 ‘캠프<sup>camp</sup>’라고 불렸다—의 관리들은 수용자들을 설득해 취업, 학업, 군 입대 등의 목적으로 캠프를 떠나 중서부 혹은 동부 지역에 가서 재정착하라고 권유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1944년 12월 일본계 미국인 집단 소개 및 배제명령이 취소되자 서부 해안 지역으로의 귀환 역시 허용되었다. 재정착 정책이 시작된 1942년 10월부터 마지막 수용소였던 툴리레이크가 폐쇄되던 1946년 3월까지 총 5만 7천명의 일본계 미국인이 서부해안으로 돌아갔고 나머지 5만 2천명은 다른 지역으로 재이주했으며 약 3천명은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으로 법무부의 보호관찰 대상자로 남았다.<sup>5)</sup> 즉 WRA의 기대와 달리 다수의 일본계 미국인들은 반일정서가 팽배한 서부 해안 지역으로의 귀환을 선택했던 것이다.

일본계 미국인 강제수용에 관한 연구에서 재정착 정책과 일본계 미국인의 재정착 경험은 주변적인 위치에 있었지만 21세기에 출간된 연구서에서는 좀 더 세밀하게 다루어지는 편이다. 초기 연구는 재정착 정책의 의도와 결과를 평가함에 있어 정책의 집행자였던 WRA 및 이들과

협력해 일본계 미국인 수용자와 재이주자를 관찰했던 당대 버클리대학 사회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는 편이었다.<sup>6)</sup> 1946년에 출간된 WRA 보고서는 재정착정책의 의도가 일본계 미국인의 동화와 미국 사회의 인종 갈등 완화를 추구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sup>7)</sup> WRA 캠프는 재정착한 일본계 미국인, 특히 니세이가 중서부나 동부에서 겪은 긍정적인 경험담—서부에서라면 아무리 대학을 나와도 들어갈 수 없던 일자리에 취업되어 새로 시작할 수 있었다는 등—을 수집했다. 역사가 로저 대니얼스는 이런 정부 자료를 “선전 문서”라고 부르면서도 “대부분의 재정착자들은 새로운 환경에서 상대적으로 잘 지내고 있었던 것 같으며 자유로운 환경이라면 당연히 캠프보다는 개선된 환경이었다고 할 수 있다”고 기술한다.<sup>8)</sup> 대니얼스는 1970년대부터 일본계 미국인 수용소를 “집중수용소<sup>concentration camps</sup>”라고 부르고 일본계 미국인 강제수용 보상 운동에 참여할 정도로 비판적인 역사가이다. 하지만 그조차도 WRA의 뉴딜 자유주의 관료와 마찬가지로 중서부와 동부 도시로의 재정착을 선택한 일본계 미국인들이 “새로운 도시 프론티어를 개척”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sup>9)</sup>

이 글은 재정착 정책에 대한 일본계 미국인의 대응이 복합적이고 다양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21세기 들어 출간된 일본계 미국인의 전시 경험 회고 및 연구서에는 재정착을 선택하거나 거부하거나 혹은 신청했어도 신원조회과정에서 거부당했던 경험을 상세히 언급하는 기록이 포함되어 있다.<sup>10)</sup> 재정착 정책의 집행과 평가에 대한 정부 관련 자료에 따르면, 재정착 정책의 주된 목표는 일본계 미국인 인구의 분산 및 이들의 에스닉 정체성 약화였지 이들에게 이동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 아니었다. 정부가 제공한 이주와 재정착의 기회를 선택할 경우 수용소의 일본계 미국인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스스로를 분리시키고 낯선 대도시에서 다른 인종의 미국인들 사이에서 “통합”되어 살아야 했다. 수용소에서 벗어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보다 많은 일본계 미국인들은

가족과 함께 수용소에 남거나, 반일 정서가 극심했지만 일본계 미국인 공동체가 있는 서부 해안으로 돌아가려 했다. 서부 해안 이외 지역으로 재정착했던 일본계 미국인들 역시 그들만의 모임을 형성하지 말라는 당국의 경고를 무시하고 외로움과 인종 편견의 압박 속에서 동족을 찾았다.

이 글은 일본계 미국인 재정착 정책이 소수 인종의 이동성을 자의적으로 통제하던 미국 정부의 오랜 관행과 닮았다고 주장한다. 물론 19세기 미국 정부의 인디언 제거나 식민화 계획의 목표는 인디언과 흑인을 미국으로부터 배제하는 것이었고 루즈벨트 행정부의 재정착 정책은 일본계 미국인의 통합을 의도했다는 점에서 다르다. 하지만 뉴딜 자유주의 정부가 소수자 통합을 위해 선택한 방식은 불평등했고 강제적이며 조건적이었다. 정부는 일본계 미국인에게 백인과 동등한 이주의 자유를 부여하지 않았고 이들을 거의 강제로 분산 이주시켜 동화와 통합을 유도했던 것이다. 다수의 일본계 미국인들은 그들의 공동체가 있는 캠프에 남거나 중서부 대도시 대신에 서부 해안으로의 귀환을 선택함으로써 재정착 정책에 반발했다. 본론의 첫 번째 장은 일본계 미국인 소개와 수감 직후 WRA가 재정착 정책을 고려하게 된 동기 및 재정착 기획 초기 단계에 나왔던 내부 논의를 다룬다. 그 다음 장에서는 1942년 말부터 1946년까지 WRA가 석방과 재정착 정책을 확정하고 집행하던 방식을 다룬다. 본론의 마지막 장에서는 재정착 정책에 대한 일본계 미국인의 다양한 반응과 재정착 경험 사례를 다룬다.

## WRA의 일본계 미국인의 이동성 통제 완화 구상, 1942년 3월에서 10월까지

미국 정부는 일본계 미국인의 집단 소개 및 수용정책이 이들의 이동성을 부당하게 통제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집단 소개

정책을 채택하기 이전에 일본계 미국인에게 서부 해안 이외 지역으로 떠나라고 권고했다. 1942년 3월 초 서부 군 기무사령부는 군사지역으로 선포된 서부 해안가 4개 주에 거주하는 일본계 미국인에게 ‘자발적으로’ 군사지역 밖으로 이주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자발적 이주의 시기에 약 9천 명 정도만 이주했고 이들은 대개 서부 해안에서 그리 멀리 벗어나지 못했다. 무엇보다 서부 해안가가 아니더라도 미국 전역에서 일본계 미국인에 대한 적대적 태도가 절정에 이르렀던 시기라 이주자가 구직과 일상생활을 영위하기란 불가능했다. 서부 군 기무사령부는 3월 27일자로 군사지역 내 일본인의 자발적 이주를 중단했고 집단적 강제 소개로 방침을 변경했다. 강제 소개명령이 내려지자 전시 농업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던 서부 내륙 및 중서부 주(오리건 동부, 유타, 콜로라도, 아이다호, 몬테나)의 농장주들, 특히 사탕수수회사들은 일본인 소개자를 노동력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제시했고 내무부도 이 가능성을 현실화할 방법을 고민했다. 1942년 4월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중서부 11개 주 대표단과 만난 자리에서 WRA 초대 국장 밀턴 아이젠하워는 “소개된 일본인들의 시민적 자유 및 이들의 노동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관심을 표하며 이들의 노동력을 활용할 5가지 방식—농지 개간 등 공공근로사업, 연방정부 소유 프로젝트 토지에서 식량 생산, 위장네트 등 군수물자의 생산, 민간 고용, 소개자들이 자체 운영하는 자립공동체—을 예시로 들었다. 그러나 콜로라도와 유타를 제외한 다른 주 대표들은 연방정부가 통제하는 소개자 노동 프로그램에 대해 각자 이유를 들어 격렬하게 반대했고 이들 모두 일본인의 민권과 인권에는 무관심했다. 1942년에 일본계 미국인을 공개적으로 외부 취업 및 재이주시키는 정책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지만 사탕수수농장의 계절노동 수요 충족을 위해 약 1만 명이 차출되었다. 그 사이 일본인 집단 수용의 원칙을 의문시하는 목소리가 등장했다. 교육계는 니세이 대학생이 캠프 외부에서 학업을 지속할 권리를, 그리고 일본인의 비 일본인 배우자들은

배우자의 석방과 가족 재결합을 군 당국에 요구했다.<sup>11)</sup>

법무부와 협의 하에 WRA는 1942년 5월부터 소개자를 취업의 목적으로 석방시켜 궁극적으로 센터 외부로의 재이주와 재정착을 장려하는 프로그램을 논의했다. 재정착 프로그램은 WRA 프로그램의 법적 토대 강화—소개자의 민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으로부터 WRA를 보호하기 위해—와 소개자의 민권 보장을 위해 도입되었다. 실제로 법무부 송무차관은 전쟁 이후 WRA를 겨냥한 소송 가능성을 고려해 일본인 집단 구금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WRA 역시 소개자 다수—약 7만 명의 니세이—가 미국시민이라는 점을 고려해 상황에 따라 구금의 강도를 조절할 계획을 세웠다. 소개자 취업 및 재이주의 형식으로는 단기 석방, 계절노동이주, 학생 재이주, 군사지역이 아닌 장소로의 “무한 강제휴가(indefinite furlough)” 등이 논의되었다.<sup>12)</sup>

1942년 7월 20일에 WRA는 기본석방규정(basic leave regulations) 초안을 확립하고 루즈벨트 행정부를 설득했다. 국장 아이젠하워는 일본계 미국인 소개자의 석방 및 재이주가 절실하다고 워싱턴에 호소하면서 인력이 귀한 전시에 이들을 감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학령연령에 속한 시민인 니세이가 “미국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캠프] 환경에서 성장하게 내버려 두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sup>13)</sup> 7월의 초안에서는 석방 자격자를 시민권자인 니세이로 한정했다. 소개자의 장기 재정착 지역으로는 서부 군 기무사령부의 관할 지역인 서부 해안, 그리고 동부 군 기무사령부 관할 지역인 대서양 해안을 제외하면—동부 군 기무사령부는 일본인의 동부 해안 접근 가능성을 우려했다—남는 곳은 중서부였다. 당국의 판단에 따르면, 중서부 도시들은 서부에 비해 일본인에 대한 편견이 심하지 않았고 일본인의 재이주를 환영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현 정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협조할 의사가 있었다. 가장 큰 논란거리는 한시적으로 석방을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영구 석방할 지였다. 영구 석방을 지지하는 관료들은 “미국인의 정상적인

경제적 삶에 [소개자들이] 빠르게 흡수”되게 하려면 이들을 다시 캠프로 불러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sup>14)</sup> 실제로는 두 입장이 절충되는 식으로 결론이 났다. 원칙상 WRA 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석방 허가를 취소할 수 있었지만 실제로 한 번 석방되어 이주한 소개자의 허가를 취소한 사례는 4년간 단 한 번뿐이었다.

비록 실현되진 못했지만 WRA 내부 논의에서 나온 “가장 극단적이고 논쟁적인 제안”은 “WRA가 모든 센터의 문을 활짝 열고 센터를 떠날 것인지 아니면 계속 잔류할 지를 특별한 절차나 과정 없이 개별 소개자의 판단에 맡기자”는 것이었다.<sup>15)</sup> 하지만 WRA는 전시 긴급 상황이라는 현실 앞에 일찌감치 이상을 포기했다. “국익과 소개자의 권리를 최대한 도모하면서 무질서와 분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석방을 진행해야 하는 것의 어려움, 그리고 극심한 반일 여론을 고려할 때 “자유방임적 재정착 정책을 채택할 경우 혼란, 유혈사태, 심각한 국제적 혼선이 예상”되었기 때문이었다.<sup>16)</sup>

1942년 10월 1일자로 확립된 최초의 석방 규정은 신청자가 연방수사국의 신원조사와 WRA 자체 내부 규정을 충족한 경우 “전원 재이주 All-Out Relocation” 시킨다는 내부 원칙을 담았다. 미국시민인 니세이 뿐만 아니라 외국인인 이세이, 그리고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일본에서 교육받은 키베이도 모두 석방을 신청할 수 있었다. 일단 석방 허가를 받으면 무기한 연장이 가능했다. 군사지역으로 선포된 서부 해안 지역 및 일본인에 대한 적대가 심한 지역을 제외하면 이동 지역에도 제한을 두지 않았다. WRA는 소개자 석방 프로그램을 “재이주센터의 자연스럽지 못한 환경에 무고한 이들을 가두는 것이 과연 타당하고 바람직한가에 대한 WRA 국장, 송무차관, 고용부 수장의 고민”이 축적된 결과라고 자체 평가했다.<sup>17)</sup>

WRA의 재정착 정책은 일본계 미국인들을 수용소에서 최대한 빨리 석방시켜 정상적인 미국인의 삶을 회복하게 도와준다는 선의에서 출발

했다. WRA 관료들은 다수의 일본계 미국인들이 캠프를 떠나길 원할 것이라고 가정했지만 재정착 정책에 대한 일본계 미국인의 반응은 생각보다 적극적이지 않았다. 무엇보다 루즈벨트는 일본계 미국인의 석방과 재정착을 반대할 여론을 고려해 일본계 미국인 인구의 고른 분산과 점진적 석방을 WRA에 주문했다.

## 일본계 미국인 인구의 분산 수단으로서 재정착 정책의 집행, 1943-1946

1943년 9월 루즈벨트는 미 상원에서 “전시 군사적 필요에 의해 소개라는 고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에 대한 충성심이 흔들리지 않은” 일본계 미국인들이 많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들의 석방과 재정착을 지지했다.<sup>18)</sup> 루즈벨트 행정부가 최종적으로 확립한 재정착 정책의 원칙은 일본계 미국인 인구의 점진적이고 고른 분산이었다. 1944년에 루즈벨트는 서부 해안 지역으로 일본계 미국인의 귀환을 허락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들을 나라 전역으로 흩뜨리는 작업이 잘 진행 중”이며 “미국 전역에 7만 5천 [일본계 미국인] 가족이 흩어져 있다면 그 어느 누구도 화내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한다.<sup>19)</sup> 역사가 존 하워드에 따르면, 루즈벨트는 전쟁 중 일본계 미국인 석방이 그의 역사적인 4선 도전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하고 “점진적 석방 프로그램을 운영해 수용자들을 분산”시키길 원했으며 서부 해안 이외의 지역에 “한 카운티당 한 두 가족만” 보내야 여론 악화를 피할 것이라고 제안했다.<sup>20)</sup> 대통령의 극단적 지시를 이행하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WRA는 일본계 미국인을 비교적 고르게 “분산”해 한 주당 “인구의 0.1%를 구성하게 만들려 계산”했다.<sup>21)</sup> 역사가 그렉 로빈슨은 서부 해안의 반일 여론을 너무 의식한 나머지 루즈벨트가 일본계 미국인을 “문제라고만

보고 이들이 스스로 살 곳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무시”했다고 평가한다.<sup>22)</sup>

재정착 정책의 집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WRA는 일본계 미국인 집단 배제 명령의 부분적 취소를 제안했다. 1943년 3월 WRA의 2대 국장 딜런 마이어는 전쟁부 장관을 비밀리에 찾아가 충성심이 입증된 니세이, 제1차 대전 참전 일본인 군인, 현재 군복무 중인 니세이 가족 등 세 집단에 대한 배제명령을 철회하고 이들의 시민권을 복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1943년 3월 니세이를 미군에 통합하지 않고 분리 부대를 만든다는 전쟁부의 결정이 내려졌다. 캠프에서는 니세이 분리 부대 징집에 반감을 가진 소개자들이 WRA의 ‘무기한 석방 신청서’에 포함된 미국에 대한 무조건적 충성 맹세를 거부하며 다른 이들도 선동했다.<sup>23)</sup> 전쟁부 장관은 불충한 소개자의 분리 수용이 더 시급한 문제라며 마이어의 제안을 거부했다. 마이어는 “충성스러운 이들에 대한 제약을 제거하고 이들의 권리를 회복하지 않은 채로 불충한 이들에 대한 제약을 추가하는 분리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충성스러운 이들의]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발했다.<sup>24)</sup> 마이어의 요청에 전쟁부는 귀를 닫았고 충성 맹세 거부자의 분리 수용에 몰두했다.

WRA는 일본계 미국인의 재정착으로 이들에 대한 미국사회의 편견을 깨뜨리고 긍정적 인식을 심을 수 있다고 믿었다. 이들의 예측대로라면 “중서부와 동부 해안지역에 수천 명의 [미국화된] 니세이를 점진적으로 흩어지게 하면 괴물로 그려진 소개자들이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다 많은 미국인들이 깨달을” 것이었다.<sup>25)</sup> WRA는 주요 재이주도시에 현장사무소를 설치하고 일본인에 대해 관용적인 지역사회 단체나 교회 조직을 모아 지역재정착위원회를 구성했다. 1943년에 중서부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동부 워싱턴디씨에 이르는 지역에 총 26개의 지역재정착위원회가 설립되어 재이주자의 주거지 확보 및 지역사회 적응에 도움을 주었다. 1944년 초부터 WRA는 중서부와 동부 해안 지역의 주요 도시

에서 “인종적 관용에 관심을 가진 교회 및 기타 사설 기관”과 함께 니세이 분리부대의 충성심과 성과를 널리 알리는 선전 작업도 진행했다.<sup>26)</sup> WRA의 자체 평가에 따르면 당국의 “선전”이 진행되면서 1944년 가을이 되면 반일 정서는 수그러들기 시작했고 전국 단위 잡지와 신문은 “무고한 이들이 불의를 겪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는” 태도를 보였다.<sup>27)</sup>

1943년에 총 1만 7천명의 소개자들이 재이주를 선택했다. 이들은 대체로 18-30세 사이의 니세이였고 이들의 이세이 부모와 미성년 형제자매는 캠프에 남았다. 이세이는 집이 있는 서부 해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면 굳이 낮은 지역에서 재적응하기보다는 캠프에서 일본계 미국인 사이에 있길 원했다. “보다 활기차고 기민하며 미국화”된 니세이에게 가장 매력적인 재이주 장소는 “높은 인구 밀도에 많은 취업 기회를 제공하며 반오리엔탈 정서가 상대적으로 없었던” 시카고였다.<sup>28)</sup> 덴버와 솔트레이크시티는 그 다음으로 인기가 높았는데 이 두 도시에는 전쟁 이전에 형성된 작지만 안정된 일본인 공동체가 존재했다. 위 3개 주요 재이주 도시 이외에 중서부와 서부산간지역 주에 소개자들이 고루 퍼져 정착했다. 동부 해안 지대에도 일자리는 많았지만 1943년에는 이 지역에 일본인의 도래를 꺼리는 전쟁부의 입장으로 인해 재이주가 활발하지 않았다.<sup>29)</sup> 서부 내륙 지대에 소재한 캠프 수용자들은 인종차별과 취업기회 부족으로 남부로의 이주를 꺼렸고 캠프 관리들도 권장하지 않았다. 유일한 남부 지역 캠프였던 아칸소 소재 로우워 캠프의 수용자들은 캠프 인근 플랜테이션에 농업노동자로 취업하거나 미시시피의 도시로 이주했다.<sup>30)</sup>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일본인 배제명령이 1944년 12월 17일에 철회되면서 일본계 미국인에게서 서부 해안으로 돌아갈 길이 열렸다. WRA는 소개자들이 서부 해안으로 신속히 돌아갈 것이라고 기대하며 센터의 폐쇄 일정을 확정하고 센터에 남아있는 소개자의 재이주를 추진

했다. 놀랍게도 많은 소개자들이 캠프에 잔류하길 원했다. 1944년 12월까지 석방 절차를 활용해 센터를 떠난 이들은 군 입대 혹은 군수산업에 취업한 이들 2천 3백 명을 포함해 3만 5천명에 불과했다.<sup>31)</sup> 일 년 안에 센터를 폐쇄하기로 결정한 WRA는 짧은 시간 안에 수만 명의 소개자들을 재이주시켜야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 소개자들 중 상당수는 삶의 터전이었던 서부 해안으로 다시 돌아가길 원했지만 고향으로 돌아간 이웃들이 테러와 살해 위협에 시달리고 적절한 주거지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1945년 1월에서 6월 사이 서부 해안으로 귀환한 일본계 미국인을 겨냥한 테러가 34건 발생했다.<sup>32)</sup> 로스앤젤레스의 경우 전쟁 중 급증한 도시 인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주택 공급 상황 및 유색인을 차별하는 주택 계약 관행으로 인해 일본계 미국인이 돌아갈 집이 사실상 없었다.<sup>33)</sup> 당연히 소개자들은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최대한 오래 센터에 남고 싶어 했다.

진보 언론 매체는 연방정부가 서부로 돌아오는 일본계 미국인의 주거와 복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거, 인종 폭력, 사회적 보호망 부재 등 재정착자가 처할 어려움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WRA는 주거는 재정착자 스스로, 인종 폭력과 복지는 지역사회가 해결할 문제라는 입장을 고집했다. 이들을 위한 특별 공공주택 건설 제안에 대해서는 “일본인을 특별 대접을 받는 집단으로 설정해 전체 인구로부터 분리시키려는 해결책”이라고 정의하며 “일본인 후손을 제약하건 혹은 환영하건 간에 특별 대접을 받는 집단으로 만드는 것은 민주국가로서 나쁜 선례”가 된다고 주장했다.<sup>34)</sup> 서부 해안의 반일 정서와 테러 위협에 대해서도 WRA는 그럴수록 소개자들을 더 많이 귀환시키고 이들에게 우호적이고 “시민정신이 투철한” 지역 내 집단이 “인종편견과 지속적으로 싸우는 일”을 수행해야 효과적이라며 우기며 연방정부의 책임을 회피했다.<sup>35)</sup> 캠프를 끝까지 떠나지 않으려는 이들을 내보내기 위해 WRA는 마지못해 약 3천 명의 공적 부조가 필요한 일본계 미국인—어린 자녀를

둔 가정, 상이군인, 노약자 등—을 수용하기 위한 트레일러 공원을 캘리포니아의 도시들에 건설했지만 이마저도 1946년에 차례로 문을 닫았고 당국은 세입자를 강제로 퇴출시키려고 물과 전기를 끊어버렸다.<sup>36)</sup>

1942년 10월부터 1946년 3월 격리수용소였던 툴리레이크 센터가 폐쇄될 때까지 4년간 총 5만 7천 명의 일본계 미국인이 서부해안으로 돌아갔고 5만 2천 명은 다른 지역으로 재이주했으며 약 3천 명은 법무부의 보호관찰 대상자로 남았다.<sup>37)</sup> 일본인 인구가 서부 해안지대에 집중되고 고립된 것을 문제로 보고 이들을 타 지역으로 고루 분산시킨다는 정부의 계획은 완수되지 못했다. 1946년 WRA 보고서는 일본계 미국인들이 서부로 다시 돌아간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서부 해안 주에서 겪은 모든 차별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많은 소개자들이 이 지역에 대한 선티멘탈한 호감과 이곳을 ‘집’이라고 보는 경향을 보였다.”<sup>38)</sup>

서부가 아닌 지역을 선택한 5만 2천 명의 일본계 미국인이 있었고 미국 전역으로 고루 퍼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많은 주에서 일본인은 전체 주 인구의 약 0.1%를 구성하게 되었음을 지적하며 WRA는 전시 일본인 재정착 정책을 “미국 역사상 가장 급속한 인구 재조정 사례 중 하나”이자 “일본인 소수자를 재통합시키는 데 큰 발전을 이룬” 사례로 평가했다.<sup>39)</sup> WRA는 재정착 정책이 다른 미국인들로 하여금 일본계 미국인을 알아가는 “첫 씨앗”을 뿌렸다고 자축했다.<sup>40)</sup> 이들을 “일본 천황 광신도”로만 알고 있던 중서부 도시와 농촌 지역 주민들은 “처음으로 직접 보고 알게” 되면서 이들 역시 “품위 있고 예의바르며 신실한 사람”이자 다른 미국인과 같은 문제들에 직면해 적응하려 노력”하는 같은 사람이라고 받아들였다는 것이다.<sup>41)</sup> 물론 일본계 미국인 인구의 물리적 분산이나 일부 미국인들과의 대면 접촉만으로 이들을 미국사회로 통합시킬 수 없다는 것을 WRA는 잘 알고 있었다. 일본계 미국인을 진정한 미국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려면 강제 소개와 구금으로 인한 이들의 재산 손실 보상, 아시아인을 차별하는 주법과 연방 이민귀화법의 개정,

소개자의 정착과 재통합을 돕는 지역 시민위원회의 집단적 활동이 필요하다고 WRA 보고서는 제안했다.<sup>42)</sup>

## 재정착 계획에 대한 일본계 미국인의 반응과 재정착 경험의 다양성

서부 해안 지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기 전에 일본계 미국인들은 수용소를 떠나 서부 해안 이외의 지역에서만 취업과 진학이 가능했다. 가장 먼저 재정착의 기회를 포착하려 했던 집단은 니세이, 그 중에서도 대학을 다니던 중 소개명령을 받아 학업을 중단해야 했거나 수용소 생활 중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였다. WRA 역시 고등교육이 필요한 니세이의 재정착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워싱턴에 호소했다. 1943년 4월 WRA 국장 딜런 마이어는 재이주센터에서의 삶을 “부자연스럽고 비미국적인 삶”이라고 묘사하며 “약 4만 명에 달하는 미성년자들을” “유자철선 뒤에서 무장경비대의 감시를 받으며 성장하게 내버려두는 것은 미국적인 방식이 아니”라고 개탄했다.<sup>43)</sup>

일본계 미국인 소개가 시작된 직후 WRA의 초대 국장 밀턴 아이젠하워는 1942년 5월에 미국퀘이커봉사위원회(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의 지도자 클라렌스 피켓이 조직한 전국 일본계 미국인 학생 재이주 위원회(National Japanese American Student Relocation Council, NJASRC)에 니세이 재이주 프로그램의 운영을 의뢰했다. NJASRC에서 니세이 대학 진학 추진에 크게 기여한 사람은 워싱턴대학 사회학자 로버트 오브라이언이었다. 퀘이커교도이자 인종정의를 추구하던 오브라이언은 시민인 니세이의 강제 수용에 반대했고 이들에게 시민적 자유를 돌려주어야 한다고 믿었다. 니세이의 석방과 대학 진학은 이들의 자유를 회복하는 방법이자 동시에 이들을 동화시키는 수단이기도 했다. 『니세이 대학생』에서 오브라이언은

대학 진학으로 니세이가 “일본식 관습과 제도와 단절되어 동화 과정에 들어가는 속도도 빨라질 것”이라고 예측했다.<sup>44)</sup> NJASRC는 WRA와 함께 대학, 민간기업, 종교기관과 긴밀한 협조 망을 구성해 수천 명의 니세이를 중서부, 동부, 남부 소재 6백여 개 대학에 보냈다.<sup>45)</sup> 1942년 초에는 약 7만 명의 서부 출신 니세이 중 약 3천 3백 명이 대학에 등록했고 1946년까지 학생재이주프로그램 아래 추가로 5천 5백 명의 니세이들이 캠프를 떠나 대학에 진학했다.<sup>46)</sup>

오브라이언에 따르면 대학 진학 및 재정착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정책에 대한 저항이었다. 니세이는 수용소를 떠나 중서부나 동부 대도시에서 대학을 다니는 전망을 선뜻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이들은 부모 형제와의 이별, 낯선 도시에서 정착하는 데 예상되는 재정 불안정 및 인종 편견을 이유로 재정착에 저항했다. 대학생이 될 자녀를 둔 부모들도 일본계 미국인이 거의 없는 지역으로 자녀를 보내길 두려워했다. 치즈코 키타노는 스미스칼리지에서 장학금을 받았지만 법무부 구금에서 풀려나 캠프로 온 아버지, 병에 걸린 어머니와 함께 있기 위해 대학 진학을 포기했다. 키타노는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부모와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이 멋진 기회를 지나가게 해야 하는 것이 힘들다”고 고백했다.<sup>47)</sup>

이주와 초기 정착 과정에서 니세이 대학생들은 캠프에서 허용되지 않았던 이동의 자유를 누리 행복하다고 고백했다. 덴버대학 도서관학과 대학원에 입학한 메리 오기는 1942년 가을에 덴버 행 기차를 타기 위해 서부로 잠시 돌아갔을 때 “이제 나는 자유다”라고 생각했다고 회고했다.<sup>48)</sup> 하트마운틴 캠프 수용자였던 M.M.은 1943년 1월 덴버에 도착하고 약 3주가 지나 덴버에 대한 소감을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자유와 프라이버시는 멋진 것이다. 센터에서의 생활은 벌써 저 멀리 있는 것 같고 마치 악몽같다. 이 곳 덴버에서 기차에서나 버스에서나 사람들은 개인적이지 않아 지금까지는 불쾌한 일이 없다.”<sup>49)</sup>

일본계 미국인을 실제로 본 적이 거의 없었던 백인 미국인들은 거리나 대중교통기관의 행인으로서, 혹은 고용자로 이들을 만날 때 공손하게 대해주려 했던 것 같다. 매사추세츠 노스햄턴에 소재한 스미스칼리지에 입학한 콘스탄스 무라야마와 그녀의 니세이 친구 헬렌은 등갓길에 동네 가정주부들로부터 아침인사를 받았다고 전했다.<sup>50)</sup> 릴리안 오타는 버클리에서 3학년에 재학하던 중 수용소로 오게 되었다. 니세이 대학 진학 재이주 정책의 첫 수혜자 중 하나였던 오타는 1942년 8월 장학금을 받고 탄포란캠프를 떠나 웰슬리칼리지로 가는 기차를 탔다. 아직 일본계 미국인에 대한 반감이 극심했던 시절이었지만 동부로 가는 기차 안에서 승객들은 오타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다. 그녀가 어디서 왔는지 궁금해 하는 승객이 딱 한 명 있었다. 이 중년 여성—아마도 백인—은 중국에서 잠시 교사로 일했던 경력이 있어서 오타를 중국인이라고 생각하며 중국과 중국인을 칭찬했고 오타도 수긍했다. 곧 그녀는 “위험한 일본인을 수감한 것이 잘된 일”이라고 언급했고 오타에게 중국 어느 지역에서 왔냐고 물어보았다. 오타가 “장제스 부인의 모교인 웰슬리칼리지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한 일본계 미국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자 그 여성은 오타를 “더 반갑게 대해” 주었고 몇 주 뒤 선물을 보내기도 했다.<sup>51)</sup> 1943년 초 시카고로 이주한 T.F.는 “온 지 4주가 지났지만 아직도 흥분이 꺼지지 않는다. 어딜가나 따뜻하게 맞아준다”며 좋아했다. 한 교수의 가정에 가사 도우미로 취업한 T.F.는 그의 아내와 세 딸 모두 그녀에게 “맞춰 주려 신경 써 주어서 주는 것보다 더 많이 받는 것처럼 느낀다”며 이 가족을 “말뿐만 아니라 행동에서도 진정한 리버럴”이라고 표현했다.<sup>52)</sup>

미국인이면서 ‘적국’ 일본인의 후손이던 니세이 대학생들은 캠프에 남은 부모와 다른 가족을 대변하고 일본계 미국인의 충성심을 증명해야 하는 압박을 받았다. 1944년 봄 프랭크 이노우에는 “아직 캠프에 남아있는 이들이 그들의 문제에 대해 일관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없기 때문에

니세이 대학생들이 이들에게 큰 책임을 지고 있다”라고 기술했다.<sup>53)</sup> 오타는 웰슬리에서 “이 나라의 모든 일본인은 어떤 식으로든 ‘사보타주와 스파이 네트워크’에 얽어 있다”고 믿는 학생을 대면했다. 오타는 “최선을 다해 그녀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고 나중에 그 학생에게 일본계 미국인 시민연맹(JACL)의 기관지인 <태평양 시민(Pacific Citizen)>을 보내주었다 (1942년 당시 JACL은 일본계 미국인 소개와 강제 수용에 찬성했다). 이후 그녀는 “자신이 틀렸었다고 인정”했다.<sup>54)</sup>

재정착 정책을 통해 정부가 달성하려던 것은 일본계 미국인의 집단 정체성 약화와 미국 사회로의 강제적 동화였다. WRA 관리들과 NJASRC는 일본계 미국인 재정착자에게 다른 미국인과 어울리려 노력하고 여가나 종교 활동을 할 때도 일본계 미국인끼리 모이지 말라고 경고했다. 학교, 직장, 집 혹은 공공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찾는 데 WRA 지부와 협동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만 낯선 도시에서 일본계 미국인 이주자들은 외로움을 느끼고 서로를 찾았다. 앞서 언급한 오기, 그리고 무라야마에게 대학에서 만난 니세이 여학생들과의 우정은 낯선 환경에 적응하게 해주는 윤활유였다.<sup>55)</sup> 소수가 모이는 것은 괜찮았지만 다수가 한 장소에서 모임을 가지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는 니세이 대학생도 있었다. 유타대학에 다니던 한 학생은 NJASRC에 보낸 편지에 동료 니세이들이 “120명 이상 모여 거북할 정도로 눈에 띄게 행동”한다면서 “니세이가 언제나 교훈을 배울 것인지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썼다.<sup>56)</sup>

전쟁 기간 중 다른 어느 도시보다 더 많은 일본계 미국인들이 재이주했던 시카고에서 WRA는 서부에서처럼 일본계 미국인의 집중 거주 지역이 형성되지 못하게 하려 안간힘을 썼다.<sup>57)</sup> 인류학자 재캐럴린 하든과의 인터뷰에서 빌 무라사키는 전쟁 기간 중 WRA가 재이주자들에게 강조한 규칙은 “뭉쳐 모이지 말고 눈에 띄지 않는 것”이었고 그런 이유로 “시카고에서 우리 [일본계 미국인] 동네를 가져본 적이 없었다”고 회고

했다. WRA는 시카고의 개별 사업주에게도 일본계 미국인의 모임을 감시하라고 주문했다. 알 카와이의 회고에 따르면, 재이주 초기였던 1943년 초 시카고의 한 무도장에서 유명한 트럼펫 연주자를 보러 많은 일본계 미국인이 모이자 무도장 주인은 이후로 일본계 미국인 관객의 비중을 “전체 5%”로 제한했다. 일본계 미국인은 종교 활동을 위한 모임에서도 제약을 받았다. 일본계 미국인 소개자를 위한 연합기독교사역이 1942년에 결성되었고 소개자 교인들은 지정된 장소—시카고대학 손다이크 힐튼 채플—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교파별 모임이나 소개자들만의 예배는 허용되지 않았다. 이들은 “초교파 환경에서 모여서 예배해야 하며 이 때 분리된 일본인 회중을 형성하거나 일본어로 예배를 진행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일본계 미국인 목사들과 회중은 초교파 예배 형식이 신자의 선택을 방해한다고 반발하며 교파 예배모임을 형성했다.<sup>58)</sup>

미국 대도시 주거지의 극심한 인종 분리, 그리고 전쟁 중 대도시 군수공장 취업 및 인구 증가로 인한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해 일본계 미국인 재정착자들은 집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시카고나 로스앤젤레스가 대표적인 예였다. 시카고의 백인들은 일본계 미국인에게 세를 주길 꺼렸다. 1943년 6월 찰스 기쿠치와 그의 여동생들은 시카고 사우스사이드 내 유대계 미국인 소유 아파트에 두 달째 거주하던 중 퇴거 통보를 받았다.<sup>59)</sup> 자초지종을 알고 보니 집 주인은 “중국인”이나 다른 비백인 입주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이웃의 말을 들었던 것이었다.<sup>60)</sup> 지역 관청의 중재로 문제가 해결되긴 했지만 이 일을 계기로 기쿠치는 시카고에서 백인과 비백인 사이의 인종분리가 얼마나 심각한 지 깨닫게 되었다. WRA는 “백인과 흑인 주민 사이의 완충지 역할을 하는 곳”—시카고의 남부와 북부지역에 소재—일본계 미국인 거주지를 지정했고 여기서 일본계 미국인들은 주로 일본계 미국인을 상대하는 아파트, 하숙집, 호텔 등을 운영했다.<sup>61)</sup>

전쟁 전 로스앤젤레스와 인근에 거주하던 일본계 미국인은 약 3만

6천 명으로 이들은 리틀도쿄에 주로 거주했다. 강제수용이 시작된 후 리틀도쿄에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유입되면서 이 지역은 브론즈빌(Bronzeville)이라고도 불렸다. 일본계 미국인의 서부 해안 지역으로의 귀환이 시작되던 1945년 초 로스앤젤레스의 주거 부족 현상은 매우 심각해서 당시 흑인 가족 중 절반 이상이 영구 거주지가 없었다. “일본계 미국인이 돌아오면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점유한 그들의 공간을 되찾으려 인종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경고”가 나돌았고 이에 시장과 흑인 교회 지도자들은 일본계 미국인의 귀환을 환영한다는 공식 메시지를 보냈다. 리틀도쿄/브론즈빌에서 일본계 미국인과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주거와 종교시설, 사업장을 두고 경쟁과 갈등이 벌어지긴 했지만 후자가 전자의 귀환을 방해하는 행동을 했다는 증거는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주택 품귀 현상으로 인해 귀환한 일본계 미국인 중 절반 정도만 영구 주거지를 확보했고 나머지 절반은 임시변통으로 지은 집이나 하숙집, 호텔을 전전했다.<sup>62)</sup>

미국에 대한 충성심을 의심받은 일본계 미국인들은 그들이 아무리 원해도 캠프를 영구히 떠나 서부 이외의 지역으로 재정착할 수 없었다. 재정착 허가를 받으려면 연방수사국의 까다로운 신원조회를 거쳐야 했다. 신청자는 교육, 전쟁 이전 소속 단체와 지인 등의 항목에서 친일적 요소가 없고 미국 주류사회에 동화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다. 1943년 2월 경 최종 확정된 무기한 석방신청서에 기입해야 할 필수 항목 중 하나는 충성심 선언이었다. 일본 천황 혹은 다른 정부나 조직에 대한 맹세를 포기하고 오직 미국에만 충성하겠다는 충성심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변해야 했다. 이에 부정적으로 답변한 이들에게는 재정착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

미노루 키요타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일본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니세이 중에서 키베이로 분류되었다. 1942년 중반 토파즈 캠프 수용 당시 18세였던 키요타는 니세이 대학 진학 프로그램이 시작된다는 소식을 듣고 캠프 사무실에 석방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한 달 뒤

그는 연방수사국 직원의 심문을 받게 된다. 연방수사국 직원은 그를 “더러운 일본 놈”이라고 부르면서 그를 일본 정부와 깊은 연관이 있는 “일본무술협회Butoku-kai 회원”이라고 몰아붙였다. 키요타는 어린 시절 협회에서 취미로 검도 수업을 받은 게 전부이며 아무 연관이 없다고 답변했지만 소용없었다.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해 서양철학과 동양철학을 비교하는 학자가 되고 싶었던 그의 꿈은 무너졌다. 연방수사국은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어린 시절 일본에서 검도를 배우고 일본 문화에 친밀하기 때문에 미국에 진심으로 충성을 맹세할 것 같지 않다는 이유로 그를 석방시키지 않았다. 연방수사국 직원의 근거 없는 비방에 분노하던 그는 캠프를 탈출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캠프를 둘러싼 유사철선망 근처에서 산책만 해도 경비대에 총살당하는 걸 보고서는 탈출 계획을 포기했다. 그가 캠프를 잠시나마 떠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캠프 근처 농장에 농업노동자로 취업하는 것이었다. 1943년 2월 재정착정책이 확립되고 모든 일본계 미국인 수용자가 무기한 석방신청서의 충성심 질문에 답변해야 했다. 토파즈 캠프 안의 다른 니세이는 미국정부에 대한 일방적 충성 맹세를 결의했지만 키요타는 “미국 시민인 그에게 미국정부가 행사하는 지나친 강요”에 분노했다. “이 정부는 내 의지와 무관하게 나를 투옥시켰고, 내 자유를 가져가 버렸고, 교육의 기회를 방해했으며 연방수사국의 치욕스런 심문을 받게 해 캠프를 떠나고 싶을 정도로 절망에 빠뜨려 놓았는데 이제는 나보고 이 정부에 대한 무조건적 충성을 맹세하라고 강요하려 한다.” 충성심 질문에 그는 “아니오”라고 답변했다. 이후 토파즈 수용소 근처에서 농장 노동자로 일하던 중 그는 탈출할 생각으로 동부로 가는 기차 화물칸에 올라탔다가 동료들이 겪을 고초를 생각해 기차에서 내렸다. 몇 달 뒤인 1943년 가을 그는 미국 정부에 대한 무조건적 충성 맹세를 거부한 수용자들의 분리수용소인 틀리레이크로 송치되었다.<sup>63)</sup>

재정착 정책이 일본계 미국인들에게 약속한 이동성에는 조건이 달렸다.

일본계 미국인들은 일본인 부모, 일본 문화와 전통, 일본계 미국인 공동체를 떠나 충성스런 미국인으로서 미국사회에 통합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제한적 이동의 자유가 허락되었다. 동화의 의지를 증명해도 이들에게는 이동 장소를 선택할 권한도 없었다. 중서부 대도시에서 반일 정서가 서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했는지 몰라도 유색인에 대한 차별은 미국 어디에나 있었다. 인종차별과 정서적 공동체의 부재 속에 중서부나 동부로 이주했던 일본계 미국인들은 미국 시민으로서 그들의 지위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재확인했다.

## 일본계 미국인 재정착 정책의 유산

제2차 세계대전 중 미국 정부는 소개 및 배제 명령으로 일본계 미국인의 이동성을 제약하고 이들을 재이주센터라고 불리던 집중수용소로 몰아넣었다. 미국 정부는 WRA의 재이주프로그램을 통해 일본계 미국인 소개자에게 이동의 자유라는 미국시민의 기본권을 다시 부여하고 이들의 민권을 회복하려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들에게 주어진 이동의 자유에는 단서가 붙었다. 일본인들끼리 모여 살거나 문화적 특수성을 드러내지 말고 미국의 주류집단과 문화에 동화되어 더 많은 미국 대중으로 하여금 일본인이 “괴물”이 아니라 동료 시민임을 인식할 수 있게 행동하라는 것이었다. 정부가 주도하고 감시했던 일본계 미국인의 재정착 정책에 대해 다수의 일본계 미국인들은 회의를 느꼈고 이주의 기회 대신에 캠프에서 동료 일본계 미국인들과 남기로 선택했다. 미국에 대한 충성심과 동화 의지를 증명하려 중서부 지역으로 재이주했던 소개자들은 사실상 인종분리가 지배적인 중서부 대도시에서 일본인 공동체와 문화의 부재 속에 외로움을 느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계 미국인 재이주 정책과 이에 대한 일본계

미국인의 양가적 대응은 인간 기본권으로서 이주의 자유라는 개념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한다. 이주 정의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누가 이주할 수 있는 지를 결정하는 권력이 특권 집단에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모든 사람이 이주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64)</sup> 하지만 이주자를 진정한 일원으로 받아들여 줄 공동체가 부재하다면 이주의 자유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전쟁 중 일본계 미국인들은 낯선 지역으로 떠날 이주의 자유 대신에 수용소나 서부 해안 지역에서 동족 사이에서 살길 선택했다. 일본계 미국인 재정착 프로그램은 이들의 문화적 소속과 집단 정체성을 지워 버리고 미국인과 어울리라고 지시했다. 일본계 미국인들 사이에서 재이주 지역으로 인기가 높았던 시카고에서 이들은 백인과 흑인 주거지의 중간 지점 어딘가에 흩어져 살아야 했고 다른 에스닉 미국인과 달리 그들만의 공동체를 만들 수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지역 사회의 주류였던 백인이 이들을 받아들인 것도 아니었다. 1944년 말 일본계 미국인의 서부 귀환이 가능해지자 많은 이들은 시카고를 떠나 서부로 돌아가길 선택했다.<sup>65)</sup>

뉴딜 자유주의 정부는 민족 소수자인 일본계 미국인의 문화와 자유주의 국가 미국의 시민권이 양립할 수 없다고 보았지만 시카고에 남기로 선택한 니세이들은 이 둘이 양립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일본계 미국인 공동체를 시카고 내 다양한 에스닉 공동체들 중 하나로 정립하려 했다. 1945년에 시카고에 남아있던 니세이들은 ‘시카고 재정착자 위원회 Chicago Resettlers Committee’를 결성했다. 위원회 지도부는 일본계 미국인만 참여하는 행사와 활동에 참여해도 충분히 미국사회에 동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 지도부는 “일본계 미국인의 시민권 복구와 동화를 증명하는 부담은 일본계 미국인이 아니라 주류사회에 달렸다”고 내세웠다.<sup>66)</sup> WRA와 협력기관은 이들의 주장을 결국 수용했고 1946년 시카고 시 정부는 시카고 재정착자 위원회를 시의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시민단체로 인정했다. 시카고의 일본계 미국인들은 그들의 문화적 정체

성을 포기하지 않고도 시카고의 주민이자 미국 시민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관철시키며 전후 다문화사회의 이상을 제안했다.

일본계 미국인 재정착 정책의 기본 원칙—소수인종집단 인구를 집중 거주지에서 대도시로 분산 이주시켜 이들의 집단 정체성을 약화시키고 미국 주류사회로 통합하기—은 1952년 트루먼 행정부의 인디언 도시 재이주 프로그램에서 다시 부활했다.<sup>67)</sup> 이 프로그램을 집행한 사람은 WRA의 국장이던 딜런 마이어였다. 인디언 재이주 프로그램은 인디언 뉴딜이라고 불리던 1930년대 인디언 부족 문화 및 보호구역 보호를 위한 인디언 취업 프로그램과 같은 연방정부 정책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다. 연방정부는 개별 인디언들에게 대도시로 이주해 취업과 자기 개발의 기회를 개인이 알아서 찾고 부족 전통과 보호구역 등 인디언 정체성을 탈각하라고 요구했다. 제2차 세계대전시기와 전후 시기 뉴딜 자유주의 행정부는 일본계 미국인과 인디언에게 그들의 고립된 공동체를 떠나 대도시에서 다른 미국인—백인 미국인—과 어울려 인종 소수자가 아니라 평범한 미국인으로 살라고 권유하면서 이들에게 이주할 곳과 정착할 공동체를 스스로 선택할 자유를 허용하지 않았다. 뉴딜 자유주의가 추구한 소수자의 이동성은 백인 중심주의적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1940년대 일본계 미국인 재정착 정책에서 가장 흥미로운 결과는 일본계 미국인 공동체의 탄력성과 역동성이라고 할 수 있다. 제한적으로 허락된 이동의 자유를 수용한 일본계 미국인은 앞서 언급한 시카고 재정착자 위원회처럼 미국 대도시에서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할 권리를 요구했다. 뉴욕으로 이주했던 니세이 유리 코치야마는 말콤 엑스의 유산을 이어 1960년대 말부터 급진적 민권운동에 참여했고 1970년대 일본계 미국인 강제수용 보상운동을 이끌기도 했다. 서부 해안으로 되돌아간 일본계 미국인들은 무너진 그들의 공동체와 조직을 재건했다.



〈원문출처〉

이 글은 아래의 글을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다.

권은혜, 「제2차 세계대전 미국정부의 일본계 미국인 재정착 정책에서 드러나는  
조건부 이동성(mobility)과 그 한계」 『호모미그란스』 27, 이주사학회, 2022

〈저자소개〉

**권 은 혜 (한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원 이주의 인문학 사업단 전임연구원)**

권은혜는 아시아계 미국인과 인종 간 결혼을 주제로 미국 플로리다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북미로의 아시아인 이주, 아시아계 미국인의 역사와 문화, 현대 미국의 인종관계를 다룬 다수의 학술 논문을 국내 저명 학술지에 출간했습니다. 현재 한성대 이주의 인문학 사업단 전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